

서칭포 슈가맨

SEARCHING FOR SUGAR MAN

2012 감독_말릭 벤젤름

이 영화는 2012년 '64회 전미비평가위원회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2013년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비해 극장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화를 선택할 때 작품 자체의 가치보다 언론홍보와 유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멕시코계 미국인 '로드리게스(Rodriguez)'는 디트로이트에서 소위 막노동을 하며 부둣가 허름한 술집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 전 '밥 딜런'이라는 포크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듯이 로드리게스의 노래 가사도 한 편의 시(詩)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그의 노래는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말하며, 자유로운 정신과 삶의 희망,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음반사 프로듀서가 찾아왔고,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음반을 세상에 내놓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출시된 음반의 판매량은 딱 6장! 무명의 멕시코계 구도자의 노래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좌절과 실의 끝에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 미국인 여성 한 명이 지구 정반대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공항에 내립니다. 그녀의 여행용 가방에는 로드리게스 음반이 한 장 있었는데, 당시 인종차별 문제로 시위가 끊이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에게

그의 노래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몇몇 음반사에서 이미 사망한 그의 앨범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수백만 장이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몇몇 사람들이 신비로 그려진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에 관해 추적하다가 자살한 줄 알았던 그가 여전히 디트로이트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로드리게스를 찾아 남아공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믿을 수 없어 하는 로드리게스를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했는데, 대형 체육관에 모여든 수만 명의 관객이 로드리게스를 외치며 열광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화의 엔딩 자막이 올라갈 즈음 문득 '만일 로드리게스가 남아공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모르고 죽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과연 실패한 예술가일까

요? 비록 단 한 장의 음반 수익금도 받지 못했지만, 수백만 장의 음반이 팔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의 삶의 가치와 성공이 세상에 알려졌거나 말거나 그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뒤늦은 성공 이후에도 공연 수익금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이전과 다름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리게스 또한 자신이 이미 부자임을 알고 있었리라 생각합니다.

최종태 베드로 | 영화감독

